

부모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 관련요인 변화와 가족정책에의 함의

Change in Factors Associated with Parental Time Spent on Care of Preschoolers and its Implication for Family Policy

김소영(Soyoung Kim)^{1*}, 진미정(Meejung Chin)²

¹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assess the durability of the trend in increasing childcare time and to get some clues based on research findings to make efficient policy interventions in case there is a need to continue or reverse course for such trend. In doing so, a total of 9,668 diaries from the 2004, 2009, and 2014 Korean Time Use Survey were analyzed targeting parents with a preschooler as their eldest child. Parental time was regressed on parents' weekly work hours, mother's relative income, parents' education and gender role attitudes. Furthermore, increase in parental childcare time was decomposed into parts that were attributable to differences in the means and slopes of associated factors. Analytic results revealed that; parents' weekly work hours were associated with time spent on childcare from 2004 to 2014;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relative earnings and her childcare time in 2004 and 2009 was reversed to a positive one in 2014; parent's education had stronger positive effects on father's than on mother's childcare time; parents' gender role attitudes had a weak association with childcare time; social and cultural changes such as decrease in work hours, higher education, more egalitarian gender role attitudes, and rise in women's wages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parental childcare time, but in a different way for mothers and fathers. By taking into account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 behind the changes, this study is able to provide a more constructive implications for childcare policy in Korea.

▲주제어(Key words) : 자녀돌봄시간 변화(temporal change childcare time), 사회·문화적 맥락(social and cultural context), 분해분석(decomposition method)

I. 서론

자녀돌봄시간의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M. Cho & S. Yoon, 2014; K. Fisher, M. Egerton, J. Gershuny, & J. Robinson., 2007; J. Gimenez-Nadal & A. Sevilla, 2012; M. Y. Kan, O. Sullivan, &

J. Gershuny, 2011; L. C. Sayer, S. M. Bianchi, & J. P. Robinson, 2004b; Y. Shin, J. Ki, S. Woo, & J. Yoon, 2014; Y. Song, 2011).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 선행연구는 낮은 출산율과 자녀양육 및 부모역할에 대한 사회규범의 변화를 지적하였다(L. Craig, 2006a; L. C. Sayer, A. H. Gauthier, & F. F. Furstenburg,

• 본 논문은 주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BK21 플러스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 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2B20152813529)

* Corresponding Author : Soyoung Kim,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 tel: +82-02-880-8921, E-mail: syoungkim@snu.ac.kr

2004; Y. Song, 2011). 자녀수가 줄어들면서 부모는 적은 수의 자녀에게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게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출산과 양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좋은 부모가 되려면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교육수준 향상은 부모의 자녀돌봄시간 증가를 견인하는 동력으로 연구되어 왔다. 고등교육을 받은 부모일수록 자녀와의 시간이 자녀의 발달에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부모역할에 대한 규범을 수용하고 사회적인 기대에 부응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J. Bonke & G. Esping-Andersen, 2011; P. England & A. Strivastava, 2013; K. Henwood & J. Procter, 2003; D. D. Johnston & D. H. Swanson, 2006; A. Lareau, 2003; O. Sullivan, 2010; O. Sullivan, F. C. Billari, & E. Altintas, 2014).

이처럼 부모의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한 배경에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자녀돌봄시간 관련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시간가용성관점, 상대적자원관점, 성역할태도관점을 사용하여 부부관계 내의 미시적 의사결정을 통해 자녀돌봄시간 결정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S. M. Ahn, K. Y. Lee, & S. M. Lee, 2013; S. M. Bianchi, M. A. Milkie, L. C. Sayer, & J. P. Robinson, 2000; S. Coltrane, 2000; K. Eun, 2009; J. L. Hook, 2010). 이에 반해, 보다 큰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탐색 시도가 거의 없었다.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등 사회 전반에 거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부간 자녀돌봄시간 배분을 결정하는 미시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바꾸어 놓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시간가용성관점에서 강조하는 가용한 시간, 상대적자원관점에서 협상의 자원으로 사용되는 소득이나 교육수준, 성역할태도관점에서 공평한 돌봄노동분담을 실현시키는 기제가 되는 평등한 성역할 태도가 자녀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부간 협상조건이나 남편과 아내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 자원의 협상력이 달라지는 않았는지, 혹은 사회의 양성평등 이데올로기가 개인으로 하여금 평등한 성역할 태도에 맞게 행동하도록 지원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D. J. Maume, 2011; O. Sullivan,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미취학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돌봄시간의 증가를 견인해 온 동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 보다 거시적인 맥락의 작용을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시간가용성관점, 상대적자원관점, 성역할태도

관점에서 강조하는 근로시간, 상대적 소득비중, 교육수준, 성역할태도가 자녀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나 방향이 종단적으로 바뀌었다면, 그 원인을 보다 큰 시대적·사회적 맥락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나타난 변화의 방향을 지속시키거나 다른 방향으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개입의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자료를 사용하였다. 생활시간조사자료가 수집된 2004년, 2009년, 2014년은 각각 주5일근무제가 시행된 시기이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미친 시기이며, 2000년대를 거쳐 자리를 잡아 온 일가족양립지원정책이 다방면으로 확대된 동시에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된 시기라는 특징이 있다. 특히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 2007년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은 가족정책 발전의 분수령이 되었으며, 이러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자리를 잡아간 2000년대에는 가족의 생활방식에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M. Chin, J. Lee, S. Lee, S. Son, & M. Sung, 2012). 사회·문화적으로는 여성의 취업률 증가와 교육수준 향상으로 평등한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확산되고(J. S. Park, 2013; S. Won, 2014), 부모역할 특히 참여적인 아버지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거시적인 맥락에서의 특징적인 변화가 가족구성원 개인의 시간에 반영되어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이 자녀돌봄시간 관련요인의 영향을 조절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자녀돌봄시간 관련요인의 종단적인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어 본 연구는 돌봄에 대한 시간수요가 크고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가 요구되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L. Craig & M. Bittman, 2008; L. C. Sayer et al., 2004b), 남성의 자녀돌봄시간이 주말에 집중되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중과 주말의 시간간지를 나누어 분석하였다(S. M. Ahn et al., 2013; M. Cho & S. Yoon, 2014; Y. Song, 2014). 또한 부모의 자녀돌봄시간 관련요인으로 주목한 근로시간, 소득, 교육수준, 성역할 태도를 가구단위에서 변수로 재구성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미시적 관점에서 벗어나 자녀돌봄시간의 증가 원인을 한국사회의 시대적, 문화적 맥락에서 찾으려는 거시적인 접근을 통해 얻은 연구결과는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가족정책 구상에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위해 구체적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1999년부터 2014년까지 부모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2004년, 2009년, 2014년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주당근로시간, 어머니의 소득비중,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성역할 태도가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 연구문제 3. 2004년과 2009년 사이, 2009년과 2014년 사이에 아내와 남편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에서 발생한 차이는 아내와 남편의 주당근로시간, 아내의 소득비중,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성역할 태도에서 조사연도간 발생한 평균의 차이와 영향력의 변화에 어느 정도 기인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부모의 자녀돌봄시간 관련요인

시간가용성관점(time availability perspective), 상대적 자원관점(relative resource perspective), 성역할태도관점(gender role perspective)은 주로 무급노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결정되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 사용되어 왔다(S. Coltrane, 2000; S. N. Davis & T. N. Greenstein, 2013; C. West & D. H. Zimmerman, 1987). 시간가용성관점은 합리성을 전제로 하면서, 시장노동에 사용하고 남은 시간을 가족시간으로 사용하는 특성상 일하는 시간이 적고 가용한 시간이 많은 배우자가 무급노동을 담당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인의 시장노동시간은 본인의 무급노동시간과는 부적인 관계를, 배우자의 무급노동시간과는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S. Coverman, 1985). 상대적자원관점에 따르면 무급노동시간은 협상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이나 소득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는 이러한 자원에서 파생되는 권력을 사용하여 무급노동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타협을 보게 된다(S. M. Bianchi et al., 2000; J. Brines, 1994). 그런데, 기존 연구는 동질혼의 확산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이 유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하면서(C. R. Schwartz & R. D. Mare, 2005), 교육수준이 협상에서 상대적 우위를 갖는 자원으로서 기능하기 어려워졌음을 시사한 바 있다. 따라서 교육수준과 자녀돌봄시간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고등교육을 받을수록 자녀와 보내는 시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에 수용적이라는 사실에 주목

하고 있다(M. Cho & S. Yoon, 2014; L. Craig, 2006a; P. England & A. Strivastava, 2013; J. Guryan, E. Hurst, & M. Kearney, 2008; H. Noh, 2014; Y. Song, 2011). 성역할태도관점은 개인의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강조한다. 실증연구에 따르면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자녀돌봄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 결과(J. Aldous, G. M. Mulligan, & T. Bjarnason, 1998; R. E. Bulanda, 2004; S. L. Hofferth, 2003)와 성역할 태도는 아버지의 자녀돌봄참여와 무관하다는 결과(R. Gaunt, 2006; W. Marsiglio, 1991)가 혼재하고 있다.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진 남성일수록 집안일을 공평하게 분담하려는 성향이 있어 자녀돌봄에 더 참여적이라는 주장과, 성역할 태도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일상의 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어렵기 때문에 남성의 자녀돌봄참여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부모의 성역할 태도와 자녀돌봄시간 사이의 관련성에 있어서도 R. E. Bulanda(2004)는 어머니의 성역할 태도는 아버지의 자녀돌봄참여와 무관하며, 이는 여성취업이 늘어나고 평등한 성역할 태도가 확산되었어도 여전히 어머니가 자녀돌봄을 대부분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면 R. Gaunt(2006)는 어머니가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본인의 자녀돌봄시간은 감소하고, 아버지의 자녀돌봄참여는 늘어난다고 보고하여, 배우자의 성역할 태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관점을 가사노동시간과 자녀돌봄시간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시간가용성관점이나 상대적자원관점과 같이 합리성에 기초하여 협상을 통해 무급노동시간이 결정된다는 시각에서는 무급노동이 회피의 대상이라는 함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즐거움과 보상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회피의 대상인 가사노동과는 성격이 다르다(D. Hallberg & A. Klevmarcken, 2003; O. Sullivan, 2013). 또한 가사노동은 하지 않아도 되고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영역도 자녀돌봄에 비해 큰 반면, 자녀돌봄을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가사노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다. 이처럼 가사노동과 구별되는 자녀돌봄의 특성은 취업모의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연구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일하는 어머니들은 시장노동시간과 자녀돌봄시간을 일대일로 교환하지 않고, 대신 본인의 여가, 수면, 개인유지 시간을 줄여가면서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M. Bittman, L. Craig, & N. Folbre, 2004; L. Craig, 2007; A. Gauthier, T. M. Smeeding, & F. Furstenberg, 2004; E. Joo, S. Kim, & M. Kim, 2014; Y. Song, 2011).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한 이유는 부모역할에 대한 규범과 기대가 여성에게 더욱 강하게 부과되어 사회적으로 '집중적인 어머니역할(intensive mothering)' 이데올로기가 양산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H. Hays, 1996; D. D. Johnston & D. H. Swanson, 2006).

이처럼 부모가 자녀돌봄시간을 결정함에 있어 사회적인 맥락이 가족의 내적 프로세스와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2000년대를 지나면서 지금까지 한국가족을 둘러싸고 급격히 변화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한다면, 시계열에 따라서도 시대적 맥락이 부모의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L. Craig, K. Mullan, & M. Blaxland, 2010; J. E. Hyun, 2014). 예를 들면, 사회인구학적인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무급노동시간 배분이 달라진 이유를 시간가용성관점과 상대적자원관점으로 설명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치고 있다. 여성의 교육수준과 임금이 높아지면서 여성이 무급노동에 가지고 있던 상대적 우위 또는 전문성이 약화되고, 동시에 혼인율 감소, 초혼연령 상승, 출산을 하락으로 무급노동에서의 시간수요도 감소하였다. 따라서 여성은 무급노동시간을 시장노동에 재분배하게 되었고, 여성의 교육수준, 경제활동참여율, 소득 상승은 여성의 협상력을 강화하여 남성이 무급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을 늘어나게 하였다(Blau, 1998; L. C. Sayer, 2005).

2. 자녀돌봄시간 관련요인의 종단적 변화

1) 근로시간과 소득

일을 하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가족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특히 자녀양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부과되는 취업여성의 경우 보육시설 또는 대리양육자를 이용하거나 남편의 육아참여를 늘림으로써 자녀돌봄의 시간수요에 대응하게 된다(L. Craig, 2007). 여기서 취업여성의 소득은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대리양육자를 고용하는 데에 사용되기도 하고, 남편의 육아참여를 늘리기 위한 협상력을 높이는 자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늘어나면서 어머니의 근로시간과 소득이 자녀돌봄시간의 변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의 근로시간이 본인의 자녀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되지 않다. 어머니의 근로시간과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 사이의 정적인 관계는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보고되었다(R. Connelly & J. Kimmel, 2009; R. H. Kitterød & S. V. Petterson, 2006; R. Wang & S. M. Bianchi, 2009).

이에 반해 D. Hallberg and A. Klevmarken(2003)은 아버지의 근로시간은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쳤으나, 어머니의 근로시간은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과 무관하다고 밝혔고, G. Argyrous and S. Rahman(2014)도 동일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S. L. Nock and P. W. Kingston(1988)의 초기 연구에서 어머니의 근로시간이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진 이후 30여년이 지나도 같은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시간가용성관점이 전제로 하고 있는 부부간 시간사용의 상호의존성이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한 비대칭성에서 나타나는 젠더의 영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실증연구 중에는 어머니의 소득비중이 클수록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S. M. Ahn et al., 2013; S. M. Bianchi et al., 2000; D. J. Maume, 2011)와 어머니의 소득비중이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과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R. Connelly & J. Kimmel, 2009; D. Hallberg & A. Klevmarken, 2003)가 공존하고 있다. 소득만으로 거의 완전한 아웃소싱이 가능한 가사노동과는 달리 외주화가 제한적인 자녀돌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소득이 본인의 협상력을 높여서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을 늘린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J. Bonke & G. Esping-Andersen, 2011; S. Raley, S. M. Bianchi, & W. Wang, 2012).

근로시간과 상대적 소득이 자녀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종단적으로 달라졌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으나, 아버지의 근로시간은 자녀돌봄시간에 안정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S. S. Hall, 2005; J. L. Hook, 2006; D. J. Maume, 2011; L. C. Sayer et al., 2004b; O. Sullivan, 2010), 어머니의 근로시간과 상대적 소득비중은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나 성역할 이데올로기에 따라 무급노동분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연구결과(M. Fuwa, 2004; H. Stier & N. Lewin-Epstein, 2007)로부터 거시적인 맥락의 조절효과를 추론해 볼 수 있다.

2) 교육수준과 성역할 태도

고학력 부모의 증가는 자녀돌봄시간이 늘어나도록 견인한 주요 동력으로서, 특히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 증가에 관한 연구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M. Cho & S. Yoon, 2014; O. Sullivan, 2010; O. Sullivan et al., 2014). 아버지의 양육이 자녀의 발달에 중요하다는 지식이나 규범은 기존의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와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에게는 교육을 통한 지식확보 및 의식변화가 더욱 중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부모가 모두

고학력일 때 자녀돌봄은 훨씬 집중적이고 평등하게 분담 되는 반면, 부모가 모두 저학력일 경우에는 자녀돌봄시간도 적을 뿐만 아니라 더 성분업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J. Bonke & G. Esping-Andersen, 2011; H. Noh, 2014).

종단적으로는 고학력 집단에서 자녀돌봄시간의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S. Chalasani, 2007; O. Sullivan, 2010). O. Sullivan(2010)은 1965년에서 2003년 사이에 영국의 고학력 남성에게서 자녀돌봄시간이 더 가파르게 상승한 이유를 고학력의 중산층 아버지들 사이에서 참여적인 아버지 역할 문화가 확산된 데에서 찾았다. 고학력 남성 중에 소득은 많으나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자녀돌봄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한정된 시간을 자녀돌봄에 사용하는 것이다. 1999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 아버지에게서도 동일한 경향을 발견한 M. Cho and S. Yoon(2014)은 고학력 남성은 일과 경력 때문에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적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따라서 아버지 양육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한편, D. J. Maume(2011)는 1977년과 1997년의 주중과 주말 자녀돌봄시간의 변화를 비교하였는데, 1997년 주말에만 아버지의 교육년수와 자녀돌봄시간 사이의 부적인 관련성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해 교육수준은 계층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중산층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자녀의 재능을 키우기 위해 피아노 레슨을 받거나 스포츠 활동을 하는 등 다른 성인에게 아이를 맡기기 때문에 주말에 고학력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이 더 적은 것이라고 해석하였다(A. Lareau, 2002).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아버지의 교육수준의 영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자녀돌봄시간 사이의 정적인 관련성이 강해지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기에는 경험적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Y. Song(2011)의 국내 연구에서는 1999년에 비해 2009년에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자녀돌봄시간 사이의 관련성은 더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출(exposure) 개념에 기반하여 개인의 성역할 태도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한 학자들은 양성평등을 이상으로 하는 사고나 상황에 노출된 개인이 점차 양성평등한 신념을 키우게 되고, 사회화, 교육,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C. L. Bolzendahl & D. J. Meyers, 2004). 이와 같은 설명은 개인의 성역할 태도가 보다 거시적인 사회의 양성평등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아 형성될 수 있으며 사회화뿐만 아니라 교육도 성역할 태도 형성의 주요 기제가 될 수 있다

고 말한다. 실제로 여성이 노동시장으로 대거 진출하고 남성의 고용지위가 낮아지면서 주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의 지위는 차츰 잠식되기 시작하였고, 그 영향으로 평등한 성역할 태도가 확산되었다는 사실은 경험적 연구의 지지를 받고 있다(K. L. Brewster & I. Padavic, 2000; L. T. Stickney & A. M. Konrad, 2012). 한국에서도 과거에 비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약화되고 노동시장에서 양성평등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J. S. Park, 2013; S. Won, 2014), 개인의 성역할 태도가 평등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가족정책의 지원유형과 지원수준에 따라서도 성역할 태도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는데(S. Kim, 2015; Y. Kim, 2012), 그렇다면 한국에서 2000년대를 지나면서 가족정책이 확대된 시대적 배경은 개인의 평등한 성역할 태도가 자녀돌봄행위로 이어지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R. Crompton, M. Brockmann, & C. Lyonette, 2005), 개인의 성역할 태도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기침체기에는 일자리에 대한 경쟁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을 떠나는 여성이 증가하고, 성별에 따른 공사역역의 이분법이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여성의 전통적인 어머니역할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다(G. Berik & E. Kongar, 2013; S. Cho, 1998; D. D. Johnston & D. H. Swanson, 2006; S. Won, 2014).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한국 사회의 어머니역할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처럼 교육수준향상, 여성취업증가, 가족정책확대, 경제위기경험이라는 시대적, 사회적 맥락은 사회의 성역할 이데올로기와 개인의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성역할 태도가 자녀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종단적으로 달라지게 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2004년, 2009년, 2014년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국민들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국민의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무급 가사노동에 소요된 시간을 파악하여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 국민계정체계에 가계 위계정정을 편입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조사되었다(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1999년에 처음 실

시된 이후 5년 주기로 2014년까지 총 네 차례 조사되었고, 조사대상은 표본가구 내 만 10세 이상 모든 가구원으로, 이들은 하루 24시간 동안 한 행위를 10분 단위로 기입하는 시간일지를 이틀씩 작성하였다. 연구대상인 첫 자녀가 미취학아동인 부모를 추출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연령은 25세에서 44세 사이의 가임기 여성으로 제한하였으나, 아버지의 연령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고, 아버지가 무직인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분석에는 2004년 부모(부부) 992쌍의 시간일지 3,968부, 2009년 부모 567쌍의 시간일지 2,268부, 2014년 부모 858쌍의 시간일지 3,432부를 합한 총 9668부를 사용하였다.

2. 변수 및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자녀돌봄시간을 종속변수로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주당근로시간, 가구소득에서 어머니의 소득비중,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성역할 태도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자녀돌봄시간은 첫 자녀가 미취학아동인 부모를 분석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생활시간조사의 '가족 보살피기' 행동의 중분류 가운데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에 포함된 행위를 하루 동안 한 시간(분)으로 산출하였다. 구체적인 행위 목록에는 '신체적 돌보기, 공부 봐주기 또는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미취학 아이 간호, 기타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가 포함되었다.

독립변수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주당근로시간은 가구 단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주업과 부업에 하루 동안 사용한 시간을 합하여 산출하였다. 가구소득에서 어머니의 소득비중은 가구단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월평균소득을 합한 값에서 어머니의 월평균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퍼센트로 산출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0의 값을, 어머니만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100의 값을 갖게 된다. 조사연도별로 월평균소득을 비교하기 위하여, 2004년과 2009년의 월평균소득은 2014년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변환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개인의 교육수준을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집단과 4년제 미만 전문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를 가구 단위로 재구성하였다. 부모가 모두 전문대 재학 이상의 학력, 부모가 모두 고졸이하의 학력, 아버지는 전문대 재학 이상이지만 어머니는 고졸이하의 학력, 어머니는 전문대 재학 이상이지만 아버지는 고졸이하의 학력을 보유한 가구 등 4개 집단으로 범주화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성역할 태도는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말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을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매우 찬성' 또는 '찬성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매우 반대' 또는 '반대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개인의 성역할 태도 구성하였다. 이것을 가지고 가구 단위에서 부모가 모두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 부모가 모두 평등한 성역할 태도, 아버지만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머니는 평등한 성역할 태도, 어머니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고 아버지는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가구 등 4개 집단으로 범주화하였다.

여기서는 무급노동시간 배분에 관한 이론으로부터 도출한 변수들 외에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여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연령, 월평균 가구소득, 자가소유, 주거면적, 직장지위(임금근로자), 직종(사무직, 전문·관리직, 서비스·판매직, 농업·제조·단순노무직)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주당근로시간, 어머니의 소득비중,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성역할 태도가 주종과 주말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종단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기술분석, t-test, OLS 회귀분석, Blinder-Oaxaca 분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해분석(decomposition analysis)은 특정 사회현상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차별 또는 차이가 실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효과들에 의해 나타나는 것인지 분석하기 위해 A. S. Blinder(1973)와 R. Oaxaca(1973)가 제안한 방법이다. 이들이 제안한 소득격차의 분해법(wage differential decomposition)에서는 두 집단(성별, 인종 등) 사이의 소득격차를 교육이나 직업경력과 같은 인적자본(생산성) 관련 특성에서의 집단간 차이로 '설명되는(explained)' 부분과, 이러한 소득 결정요인에서의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unexplained)' 부분으로 나눈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구조적 차별로 해석하지만, 이 부분은 관찰되지 않은 요인들의 집단간 차이로 인한 영향도 포함하고 있다(B. Jann, 2008).

서구에서는 자녀돌봄시간에서 나타나는 종단적인 변화가 개인이나 가족의 구성변화(compositional change)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향(propensity)이 바뀌었기 때문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해법을 사용하였다(S. Bianchi et al., 2000; S. Chalasani, 2007; D. J. Maume,

2011; L. C. Sayer et al., 2004b). 국내에서는 Y. Shin et al.(2014)이 분해법을 사용하여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자녀돌봄시간의 연도별 차이를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차이와 '비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차이로 분해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부모의 자녀돌봄시간 차이를 개인이나 가족 구성에서의 변화, 즉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차이와 비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차이로 분해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기존 연구에서는 성향의 변화 또는 문화적인 요인으로 특징지었던 '비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차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해함으로써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시도하였다. 2004년과 2014년 자녀돌봄시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bar{Y}_{2014} - \bar{Y}_{2004} = \hat{\beta}_{2004}(\bar{X}_{2014} - \bar{X}_{2004})' + \bar{X}'_{2004}(\hat{\beta}_{2014} - \hat{\beta}_{2004}) \quad \text{①}$$

식 1의 우변의 첫 번째 항은 특성효과(endowments effect)로서 2004년 표본의 독립변수 평균값(\bar{X}_{2004})과 2014년 표본의 독립변수 평균값(\bar{X}_{2014})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자녀돌봄시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두 번째 항은 계수효과(coefficients effect)로서 독립변수가 자녀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가 2004년과 2014년 사이에 달라졌기 때문에 발생한 차이이다. 특성효과에 의한 부분은 개별 독립변수의 평균값 차이가 자녀돌봄시간의 차이에 기여한 정도를 합한 값으로 다음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계수효과에 의한 부분도 개별 변수의 계수 차이가 자녀돌봄시간의 차이에 기여한 정도를 합한 값으로 다음의 식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hat{\beta}_{2004}(\bar{X}_{2014} - \bar{X}_{2004})' = \hat{\beta}_{1,2004}(\bar{X}_{1,2014} - \bar{X}_{1,2004})' + \hat{\beta}_{2,2004}(\bar{X}_{2,2014} - \bar{X}_{2,2004})' + \dots \quad \text{②}$$

$$\bar{X}'_{2004}(\hat{\beta}_{2014} - \hat{\beta}_{2004}) = (\hat{\beta}_{0,2014} - \hat{\beta}_{0,2004}) + \bar{X}'_{1,2004}(\hat{\beta}_{1,2014} - \hat{\beta}_{1,2004}) + \bar{X}'_{2,2004}(\hat{\beta}_{2,2014} - \hat{\beta}_{2,2004}) + \dots \quad \text{③}$$

식 2에서 \bar{X}_1 과 \bar{X}_2 는 독립변수의 평균값이고, $\hat{\beta}_1$ 과 $\hat{\beta}_2$ 는 독립변수의 계수로서, 우변의 첫 번째 항은 2004년과 2014년 사이 \bar{X}_1 의 차이가 자녀돌봄시간 차이에 기여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항은 2004년과 2014년 사이 \bar{X}_2 의 차이가 자녀돌봄시간 차이에 기여하는 부분이다. 식 3에서 우변의 첫 번째 항 ($\hat{\beta}_{0,2014} - \hat{\beta}_{0,2004}$)는 상수로서 관

찰되지 않은 변수의 차이가 자녀돌봄시간의 차이에 기여하는 부분이다. 두 번째 항은 2004년과 2014년 독립변수 \bar{X}_1 의 영향력의 차이($\hat{\beta}_{1,2014} - \hat{\beta}_{1,2004}$)가 자녀돌봄시간의 차이에 기여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 항은 2004년과 2014년 독립변수 \bar{X}_2 의 영향력의 차이($\hat{\beta}_{2,2014} - \hat{\beta}_{2,2004}$)가 자녀돌봄시간 차이에 기여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연도를 2004년과 2009년, 2009년과 2014년으로 5년씩 나누어 동일하게 분해분석을 실시하였고, 모든 분석에는 STATA 1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첫 자녀가 미취학아동인 부모의 개인 및 가구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사이 여성의 평균나이는 약 2세가량 증가하였고($F=74.00, p<.001$), 남성의 평균나이는 약 1.6세 증가하였다($F=36.84, p<.001$). 동 기간 교육수준도 높아져서 2004년에는 50%의 여성이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2014년이 되면 그 비중이 80%로 늘었고($X^2=179.17, p<.001$), 전문대 이상 학력을 보유한 남성의 비중도 60%에서 81%로 늘었다($X^2=101.77, p<.001$). 2004년에도 과반 수 이상의 여성들이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2014년에는 78%로 그 비중이 더 커졌다($X^2=20.69, p<.001$). 2004년에는 남성 가운데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조금 더 우세하였으나, 2014년에는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보유한 남성의 비율이 54%로 더 많아졌다($X^2=18.18, p<.001$). 취업여성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X^2=9.54, p<.01$) 30%대를 넘지 못하였으며, 주당근로시간도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에 반해 남성의 주당근로시간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F=6.97, p<.001$). 취업여성의 월평균소득은 2004년에는 41만원에서 2014년에는 78만원으로 2배 가까이 상승하였고($F=32.19, p<.001$), 남성의 월평균소득 또한 264만원에서 315만원으로 올랐다($F=58.48, p<.001$). 남성과 여성 모두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취업여성들 중에서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증가하였다($X^2=15.04, p<.001$).

조사대상가구의 특성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10년 사이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늘었으나 여전히 남편이 주부양자인 가구가 훨씬 많았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월평균소득을 합한 가구소득은 2004년 304만원에서 2014년 394만원으로 약 30% 상승하였고($F=82.61, p<.001$), 가구소득에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Personal Characteristics

(unit: frequency(%)/mean(SD))

		Mothers				Fathers			
		2004	2009	2014	F / X ²	2004	2009	2014	F / X ²
Age		31.23 ^a (3.33)	32.00 ^b (3.81)	33.22 ^c (3.55)	F = 74.00***	33.86 ^a (3.83)	34.29 ^a (4.32)	35.45 ^b (4.11)	F = 36.84***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 less	492 (49.6)	202 (35.6)	169 (19.7)	X ² = 179.17***	399 (40.2)	169 (29.8)	160 (18.7)	X ² = 101.77***
	College & more	500 (50.4)	365 (64.4)	689 (80.3)		593 (59.8)	398 (70.2)	698 (81.3)	
Gender role attitude	Traditional	306 (30.8)	172 (30.3)	189 (22.0)	X ² = 20.69***	556 (56.0)	297 (52.4)	396 (46.2)	X ² = 18.18***
	Egalitarian	686 (69.2)	395 (69.7)	669 (78.0)		436 (44.0)	270 (47.6)	462 (53.8)	
Employment	Employed	306 (30.9)	185 (32.6)	322 (37.5)	X ² = 9.54**	992 (100)	567 (100)	858 (100)	
	Unemployed	686 (69.1)	382 (67.4)	536 (62.5)		-	-	-	
Weekly work hours		12.49 (21.63)	13.72 (21.37)	12.57 (19.61)	ns	54.16 ^a (13.39)	53.08 ^{ab} (15.20)	51.74 ^b (13.47)	F = 6.97***
Monthly income (10,000 KW)		40.81 ^a (84.04)	57.97 ^b (105.05)	78.46 ^c (114.44)	F = 32.19***	263.83 ^a (107.66)	272.06 ^a (106.14)	315.21 ^b (104.68)	F = 58.48***
Employment status	Employee	225 (73.5)	155 (83.8)	274 (85.1)	X ² = 15.04***	786 (79.2)	461 (81.3)	707 (82.4)	ns
	Employer / Self-employed	81 (26.5)	30 (16.2)	48 (14.9)		206 (20.8)	106 (18.7)	151 (17.6)	
Occupation	Clerical	83 (27.1)	62 (33.5)	104 (32.3)	ns	193 (19.5)	132 (23.5)	252 (29.4)	X ² = 35.89***
	Professional / Managers	108 (35.3)	63 (34.1)	134 (41.6)		280 (28.2)	136 (24.2)	218 (25.4)	
	Service / Sales	73 (23.9)	42 (22.7)	55 (17.1)		157 (15.8)	87 (15.4)	150 (17.5)	
	Agriculture / Laborer / Manufacturing	42 (13.7)	18 (9.7)	29 (9.0)		362 (36.5)	208 (36.9)	238 (27.7)	

*p<.05. **p<.01. ***p<.001.

1) The number of respondents are 992 parents (couples) in 2004, 567 parents in 2009, and 858 parents in 2014.

2) Superscripts (a, ab, b, c) indicate that valu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ased on the post-hoc Scheffé contrast.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Household Characteristics

(unit: frequency(%)/mean(SD))

		2004(N=992)	2009(N=567)	2014(N=858)	F / X ²
Parental employment	Only father employed	686(69.1)	382(67.4)	536(62.5)	X ² = 9.54**
	Both employed	306(30.9)	185(32.6)	322(37.5)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KW)		304.63(140.91) ^a	330.03(156.49) ^b	393.68(157.89) ^c	F = 82.61***
Mother's proportion of household income (%)		9.55(17.74) ^a	12.08(19.76) ^b	15.48(20.11) ^c	F = 22.21***
Parents' education	Neither has college degree	332(33.5)	115(20.3)	85(9.9)	X ² = 200.11***
	Both have college degree	433(43.6)	311(54.9)	614(71.6)	
	Father has college degree, mother not	160(16.1)	87(15.3)	84(9.8)	
	Mother has college degree, father not	67(6.8)	54(9.5)	75(8.7)	
Parents' gender role attitude	Both traditional	246(24.8)	126(22.2)	130(15.1)	X ² = 33.59***
	Both egalitarian	376(37.9)	224(39.5)	403(47.0)	
	Father traditional, mother not	310(31.3)	171(30.2)	266(31.0)	
Parents own home	Mother traditional, father not	60(6.0)	46(8.1)	59(6.9)	X ² = 27.38**
	Yes	415(41.8)	284(50.1)	461(53.7)	
	No	577(58.2)	283(49.9)	397(46.3)	
	Living space (in <i>pyung</i>)	18.9(5.8) ^a	22.4(7.3) ^b	23.6(7.5) ^c	F = 115.63***

*p<.05. **p<.01. ***p<.001.

1) Superscripts (a, b, c) indicate that valu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ased on the post-hoc Scheffé contrast.

서 어머니의 월평균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9.6%에서 15.5%로 늘었다($F=22.21, p<.001$). 2004년에는 부모가 모두 고졸이하인 가구가 34%, 부모가 모두 전문대이상인 가구가 44%로 집단간 차이가 10%p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이 되면 그 차이가 62%p로 커졌다. 2004년에는 부모가 모두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25%, 부모가 모두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38%였으나, 2014년에 이르면 그 비율이 각각 15%로 감소하고 47%로 증가하여 집단 간 차이가 더 커졌다.

2. 자녀돌봄시간 변화

<Table 3>에서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가 처음 실시된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자녀돌봄시간의 종단적인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서 주중과 주말에 증가하였고($F=25.52, 10.57, 44.67, 78.42, p<.001$),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은 주말에 비해 주중에 더 길고 증가속도도 더 빨랐으나,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은 주말에 더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빠른 증가세는 2004년부터 시행된 이후 확대된 주5일근무제가 기혼남성의 주말 시장노동시간을 줄이면서, 주말에 가족시간으로 가용한 시간자원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M. W. Ji & M. S. Cho, 2014).

3. 자녀돌봄시간 관련요인 변화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주당근로시간, 어머니의 소득비중,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성역할 태도의 영향이 종단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4년, 2009년, 2014년 조사연도별로 시간일지를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와 <Table 5>에 제시하였다).

<Table 4>를 보면, 어머니의 주당근로시간은 주중과 주말에 모든 조사연도에서 본인의 자녀돌봄시간에 부정 영향을 미쳤으며, 2014년이 되면 그 영향의 강도가 더 커졌다(주중: $b=-1.99, -2.22, -4.83, p<.001$, 주말: $b=-1.94, -1.46, -3.08, p<.001$). 아버지의 주당근로시간이나 부모의 교육수준은 2014년 주중에만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과 관련이 있었고, 이때 아버지의 주당근로시간이 길수록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하였다($b=.71, p<.05$). 부모가 모두 전문대이상인 가구의 어머니에 비해 부모가 모두 고졸이하인 가구의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하루에 46분 정도 짧았다($b=-46.09, p<.001$). 어머니의 소득비중은 주중에만 모든 조사연도에서 본인의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쳤다. 2004년과 2009년에는 어머니의 소득비중이 클수록 자녀돌봄시간이 감소하였으나($b=-1.39, -2.04, p<.001$), 2014년이 되면 반대로 어머니의 소득비중이 클수록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이 늘어났다($b=1.06, p<.01$). 부모의 성역할 태도는 2014년 주말에만 관련이 있었고, 부모의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인 가구의 어머니보다 어머니는 전통적이지만 아버지는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보고한 가구의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하루에 약 48분 정도 더 길었다($b=48.22, p<.01$).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 <Table 5>에 따르면, 주중에는 모든 조사연도에서 아버지의 주당근로시간이 길수록 본인의 자녀돌봄시간은 줄었고($b=-.30, -.34, p<.05, b=-.90, p<.001$), 주말에는 2009년과 2014년에 이러한 부적 관련이 나타났다($b=-.63, p<.05, b=-1.27, p<.001$). 부모의 교육수준은 주중에는 2014년에만, 주말에는 2004년과 2014년에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쳤다. 2014년 주중에는 부모가 전문대이상인

Table 3. Childcare Minutes per Day of Mothers and Fathers, by Weekend and Year

		1999	2004	2009	2014	F	Scheffé
Mother	Weekdays (N=1,633)	190.8	207.4	222.2	235.7	25.52**	a b bc c
	Weekend (N=1,081)	166.8	177.7	192.3	199.5	10.57**	a ab bc c
	t	4.69***	4.99***	3.86***	5.24***		
Father	Weekdays (N=1,633)	22.6	28.5	36.7	42.2	44.67**	a b cd d
	Weekends (N=1,081)	40.1	47.6	74.6	92.5	78.42**	a ab c d
	t	-8.16***	-7.93***	-9.77***	-14.45***		

* $p<.05$. ** $p<.01$. *** $p<.001$.

1) 1999년 생활시간조사자료에는 개인의 월평균소득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었고 성역할 태도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의 상대적 소득비중이나 부부의 성역할 태도 변수를 구성할 수 없다는 한계로 인하여 회귀분석에서는 1999년 자료를 제외하였다.

Table 4. Factors Associated with Mother's Childcare Time

	Weekdays			Weekends		
	2004	2009	2014	2004	2009	2014
	(N=1,153)	(N=651)	(N=1,057)	(N=831)	(N=483)	(N=659)
	<i>b</i> (S.E.)	<i>b</i> (S.E.)	<i>b</i> (S.E.)	<i>b</i> (S.E.)	<i>b</i> (S.E.)	<i>b</i> (S.E.)
Mother's weekly work hours	-1.99** (.43)	-2.22** (.33)	-4.83*** (.38)	-1.94** (.25)	-1.46** (.35)	-3.08** (.46)
Father's weekly work hours	.33 (.33)	.21 (.34)	.71* (.35)	-.22 (.35)	-.15 (.40)	.76 (.43)
Neither mother nor father has college degree	-18.30 (10.40)	-11.98 (13.23)	-46.09*** (13.93)	-9.39 (11.72)	-6.42 (16.09)	-12.47 (19.82)
Father has college degree, mother not	-4.81 (13.93)	-22.14 (14.52)	-22.47 (15.29)	10.87 (14.61)	-1.05 (18.93)	-22.19 (17.68)
Mother has college degree, father not	-18.22 (17.83)	25.19 (21.66)	-18.58 (20.00)	-.87 (16.87)	-6.22 (18.17)	-13.82 (14.75)
Mother's proportion of household income	-1.39** (.41)	-2.04** (.36)	1.06** (.40)	.31 (.36)	-.31 (.42)	1.13 (17.10)
Mother & father have egalitarian gender role attitudes	12.88 (10.63)	2.88 (14.60)	-7.32 (13.76)	2.11 (12.72)	-27.01 (17.76)	18.20 (15.45)
Mother has egalitarian / father has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18.72 (11.53)	15.33 (15.07)	-9.11 (14.02)	2.34 (13.15)	-28.32 (17.99)	7.23 (15.99)
Father has egalitarian / mother has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19.69 (20.40)	5.90 (20.72)	-2.92 (24.02)	2.00 (20.94)	-13.43 (24.92)	48.22* (21.94)
Constant	299.06** (79.22)	162.85 (87.57)	357.62** (1.62)	454.24** (83.86)	180.60* (82.91)	365.08** (111.21)
<i>F</i>	23.99**	29.33**	35.78**	9.51**	5.46**	7.34**
<i>R</i> ²	.2317	.3502	.3380	.1398	.1311	.1496

p*<.05. *p*<.01. ****p*<.001

1) *N* : Number of diaries analyzed

2) Reference groups: Mother & father have college degree, mother & father have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3) Controls: Monthly household income, mother's age, father's age, home ownership, living space

Table 5. Factors Associated with Father's Childcare Time

	Weekdays			Weekends		
	2004	2009	2014	2004	2009	2014
	(N=1,153)	(N=651)	(N=1,057)	(N=831)	(N=483)	(N=659)
	<i>b</i> (S.E.)	<i>b</i> (S.E.)	<i>b</i> (S.E.)	<i>b</i> (S.E.)	<i>b</i> (S.E.)	<i>b</i> (S.E.)
Mother's weekly work hours	-.10 (.08)	.08 (.22)	-.07 (.17)	-.14 (.15)	.11 (.28)	-.47 (.29)
Father's weekly work hours	-.30* (.12)	-.34* (.14)	-.90** (.17)	-.34 (.18)	-.63* (.27)	-1.27*** (.32)
Neither mother nor father has college degree	-5.80 (3.70)	-5.77 (6.62)	-22.09*** (5.51)	-13.86* (6.59)	-14.87 (9.67)	-25.15 (13.28)
Father has college degree, mother not	-3.09 (4.40)	-10.34 (5.97)	-2.62 (8.92)	-5.15 (7.70)	4.73 (12.63)	-38.66** (10.47)
Mother has college degree, father not	-5.19 (5.98)	-8.22 (7.07)	.67 (6.01)	-7.06 (8.75)	-3.79 (13.09)	-20.86 (13.45)
Mother's proportion of household income	.11 (.11)	.01 (.23)	.16 (.17)	.14 (.23)	-.21 (.38)	-.12 (.30)
Mother & father have egalitarian gender role attitudes	2.24 (3.55)	6.50 (6.12)	6.17 (4.95)	-.27 (6.77)	-4.09 (10.77)	8.60 (11.79)
Mother has egalitarian / father has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12 (3.56)	-3.89 (5.80)	-4.29 (4.77)	-4.13 (6.36)	.89 (11.05)	13.08 (12.00)
Father has egalitarian / mother has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14.22 (7.65)	-.39 (7.66)	6.31 (7.15)	-16.97 (8.66)	9.08 (17.03)	12.49 (17.97)
Constant	64.22** (21.16)	31.25 (34.15)	58.74 (36.90)	57.03 (41.43)	22.04 (67.80)	154.45 (86.97)
<i>F</i>	2.21**	1.65*	3.62**	2.24**	2.97**	3.45**
<i>R</i> ²	.0389	.0488	.1011	.0611	.1018	.0907

p*<.05. *p*<.01. ****p*<.001.

1) *N* : Number of diaries analyzed

2) Reference groups: Mother & father have college degree, mother & father have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3) Controls: Monthly household income, mother's age, father's age, home ownership, living space, employee, occupation (clerical, professional/managers, service/sales, agriculture/ manufacturing/laborer)

가구에 비해 부모가 고졸이하인 가구에서 아버지의 자녀 돌봄시간이 하루 약 22분 정도 짧았고($b=-22.09, p<.001$), 2014년 주말에는 아버지만 전문대이상이고 어머니는 고졸 이하인 가구의 아버지가 자녀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이 하루에 약 39분 짧았다($b=-38.66, p<.001$). 2004년 주말에는 부모가 전문대이상인 가구에 비해 부모가 고졸이하인 가구에서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이 하루 약 14분가량 짧았다($b=-13.86, p<.05$). 성역할 태도는 2004년 주말에만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과 관련이 있었고, 부모의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인 가구의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의 성역할 태도는 전통적이지만 아버지는 평등한 가구에서 아버지의 주말 자녀돌봄시간이 하루 약 17분 적었다($b=-16.97, p<.05$).

4. 자녀돌봄시간 차이 분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자녀돌봄시간의 변화를 2004년과 2009년, 2009년과 2014년으로 5년씩 나누어 분해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6>과 <Table 7>에 제시하였다. 분해분석 결과를 통해 5년간 어머니와 아버지의 주당근로시간과 어머니의 소득비중에서의 평균값의 차이, 그리고 부모의 교육수준과 성역할 태도에서 범주별 분포의 차이로 2004년과 2009년 사이, 2009년과 2014년 사이에 발생한 자녀돌봄시간의 차이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계수)이 5년 사이에 달라지면서 발생한 차이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Table 6. Decomposition of 2014-2004 Changes in Mother's Daily Minutes of Childcare

	Weekdays				Weekends			
Average minutes in 2014	235.73				199.52			
Average minutes in 2009	222.22				192.25			
Average minutes in 2004	207.35				177.72			
2004 - 2009 change	14.87				14.53*			
2009 - 2014 change	13.50				7.27			
	2004 - 2009 change				2009 - 2014 change			
	Characteristics		Coefficients		Characteristics		Coefficients	
	Minutes	%	Minutes	%	Minutes	%	Minutes	%
Weekdays total	-5.69	-38	20.57**	138	1.21	9	12.30†	91
Mother's weekly work hours	-1.84	32	-3.09	-15	1.88	155	-32.61	-265
Father's weekly work hours	-.35	6	-6.55	-31	-.19	-16	26.24	213
Both have college degree	.88	-15	-4.31	-21	.42	35	14.06	114
Neither has college degree	1.05	-18	-.35	-2	.96	79	-1.45	-12
Father has college degree, mother not	.05	-1	-4.30	-21	1.35	112	1.95	16
Mother has college degree, father not	-.30	5	3.58	17	-.57	-47	-1.95	-16
Mother's proportion of household income	-3.43	60	-7.85	-38	-7.07	-584	48.05	391
Both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39	-7	1.53	7	.47	39	1.60	13
Both egalitarian gender role attitude	.00	0	-1.28	-6	-.24	-20	.32	3
Father traditional, mother egalitarian	-.08	1	.98	5	.25	21	-4.26	-35
Mother traditional, father egalitarian	.21	-4	-.61	-3	.00	0	.13	1
Controls	-2.27	41	177.72	864	3.95	326	-204.12	-1,660
Constant			-134.90	-656			164.34	1,337
Weekends total	-1.06	-7	15.59*	107	1.89	26	5.38	74
Mother's weekly work hours	-3.19	301	6.72	43	2.28	121	-20.41	-379
Father's weekly work hours	.25	-24	3.81	24	.29	15	47.00	874
Both have college degree	-.02	2	2.04	13	.47	25	6.18	115
Neither has college degree	1.26	-119	1.37	9	.33	17	.26	5
Father has college degree, mother not	-.32	30	-1.11	-7	-.09	-5	-1.15	-21
Mother has college degree, father not	-.01	1	-.15	-1	-.03	-2	.11	2
Mother's proportion of household income	.82	-77	-7.52	-48	-1.01	-53	22.20	413
Both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03	-3	4.09	26	-1.02	-54	-5.61	-104
Both egalitarian gender role attitude	.01	-1	-4.02	-26	-.69	-37	4.42	82
Father traditional, mother egalitarian	-.01	1	-3.81	-24	.19	10	-.02	0
Mother traditional, father egalitarian	.00	0	.24	2	.02	1	2.05	38
Controls	.12	-11	309.93	1,987	1.15	62	-261.03	-4,853
Constant			-296.00	-1,898			211.38	3,928

* $p<.05$. ** $p<.001$.

1) Controls: Monthly household income, mother's age, father's age, home ownership, living space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 차이에 대한 세부분해 결과는 <Table 6>과 같다. 2004년에서 2009년 사이에 자녀돌봄 시간은 주중과 주말에 각각 약 15분 증가하였고, 이 증가분은 모두 계수효과에 의한 것이었다. 특히 주중에는 어머니의 소득비중과 주당근로시간이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자녀돌봄시간이 감소했어야 하고, 계수효과 또한 어머니의 소득비중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강화되고 아버지의 주당근로시간이 미치는 정적 영향이 약화되는 등의 영향력 변화가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을 감소시키도록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통제변수의 영향력 변화는 독립변수의 계수효과를 모두 상쇄시키면서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을 20분 이상 증가하게 하였다. 주말에는 어머니의 주당근로

시간이 늘어난 것이 특성효과에 의한 약 1분의 감소분에 기여하였으나, 계수효과에서는 주중과 마찬가지로 통제변수의 영향력이 달라진 것이 주말 자녀돌봄시간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주중 자녀돌봄시간은 약 14분, 주말에는 약 7분 증가하였다. 주중에는 계수효과로 인하여 자녀돌봄시간이 늘었고, 주말에도 증가분 가운데 26%는 특성효과에, 나머지 74%는 계수효과에 기인하였다. 어머니의 소득비중 증가로 주중 자녀돌봄시간은 감소했어야 하지만, 어머니의 주당근로시간이 2009년에 비해 2014년에 감소한 것과 통제변수의 평균변화로 주중 자녀돌봄시간은 약 1분 정도 증가하였다. 계수효과로 인한 증가분인

Table 7. Decomposition of 2014-2004 Changes in Father's Daily Minutes of Childcare

	Weekdays				Weekends			
Average minutes in 2014	42.16				92.55			
Average minutes in 2009	36.92				74.55			
Average minutes in 2004	28.54				47.65			
2004 - 2009 change	8.38**				26.90**			
2009 - 2014 change	5.24*				17.99**			
	2004 - 2009 change				2009 - 2014 change			
	Characteristics		Coefficients		Characteristics		Coefficients	
	Minutes	%	Minutes	%	Minutes	%	Minutes	%
Weekdays total	.13	2	8.24**	98	2.16	41	3.08	59
Mother's weekly work hours	-.09	-69	2.41	29	-.06	-3	-1.83	-59
Father's weekly work hours	.29	223	-2.44	-30	.33	15	-28.67	-931
Both have college degree	.28	215	1.35	16	1.18	55	-.05	-2
Neither has college degree	.29	223	.52	6	-.03	-1	-1.63	-53
Father has college degree, mother not	.00	0	-.80	-10	.30	14	.77	25
Mother has college degree, father not	-.07	-54	-.05	-1	.05	2	.71	23
Mother's proportion of household income	.27	208	-1.25	-15	.03	1	2.35	76
Both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11	85	.81	10	.04	2	-.22	-7
Both egalitarian gender role attitude	-.01	-8	3.05	37	.50	23	-.87	-28
Father traditional, mother egalitarian	.04	31	-.07	-1	-.10	-5	-.59	-19
Mother traditional, father egalitarian	.33	254	-.98	-12	.02	1	.33	11
Controls	-1.31	-1,008	42.54	518	-1.10	-4	11.05	359
Constant			-36.85	-447			21.73	705
Weekends total	2.09	8	24.81**	92	6.17*	34	11.82	66
Mother's weekly work hours	-.23	-11	3.53	14	-.17	-3	-7.31	-62
Father's weekly work hours	.38	18	-15.64	-63	1.21	20	-32.97	-279
Both have college degree	.97	46	-1.73	-7	.48	8	12.56	106
Neither has college degree	.97	46	-.85	-3	1.26	20	.73	6
Father has college degree, mother not	-.04	-2	.91	4	-.33	-5	-2.38	-20
Mother has college degree, father not	-.01	0	.02	0	-.00	0	.06	1
Mother's proportion of household income	.38	18	-4.33	-17	-.70	-12	1.37	12
Both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11	-5	-1.48	-6	.09	1	-1.11	-9
Both egalitarian gender role attitude	.11	5	-4.14	-17	-.39	-6	2.58	22
Father traditional, mother egalitarian	-.01	0	-.58	-2	.01	0	1.55	13
Mother traditional, father egalitarian	-.07	-3	1.39	6	.05	1	-.29	-2
Controls	-.25	-12	76.92	309	4.66	76	25.20	212
Constant			-29.21	-118			11.83	100

* $p < .05$, ** $p < .001$

1) Controls: Monthly household income, mother's age, father's age, home ownership, living space, employee, occupation (clerical, professional/managers, service/sales, agriculture /manufacturing/laborer)

12분은 어머니의 소득비중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약화되고 아버지의 주당근로시간이 미치는 정적 영향이 강화된 것에 기인하였다.

조사연도간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 차이를 세부분해한 결과를 보면, 자녀돌봄시간 증가는 계수효과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계수효과 가운데에서도 통제변수의 영향력 변화와 관찰되지 않은 요인에 의한 부분이 독립변수의 영향력 변화로 발생한 차이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04년과 2009년 사이에는 관찰되지 않은 요인들이 자녀돌봄시간이 감소하도록 작용한 반면, 2009년과 2014년 사이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반대로 자녀돌봄시간이 늘어나도록 작용한 것을 볼 수 있다.

<Table 7>에서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 차이에 대한 분해분석 결과를 보면, 2004년에서 2009년까지 자녀돌봄시간은 주중에는 약 8분, 주말에는 약 27분 증가하였고, 모두 계수효과에 의해 발생한 차이였다. 주중 계수효과에는 부모가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강해지고 어머니의 주당근로시간이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강화된 것이 크게 기여하였다. 주말에는 학력이 전문대이상인 부모의 비중이 늘고 고졸이하인 부모의 비중이 줄어든 것이 자녀돌봄시간이 2분 증가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계수효과에서는 아버지의 주당근로시간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강화됨으로써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이 감소했어야 하지만, 통제변수의 영향력 변화로 주말 자녀돌봄시간이 약 25분 늘었다.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는 자녀돌봄시간이 주중에 약 5분, 주말에 약 18분 증가하였다. 이 증가분 가운데 주중에는 59%, 주말에는 66%가 계수효과에 의한 부분으로서, 특성효과보다는 계수효과가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 증가에 더 기여하였다. 특성효과에서는 전문대이상인 고학력 부모의 비중이 늘어나고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늘어난 것이 아버지의 주중 자녀돌봄시간 증가에 기여하였다. 반면, 계수효과에서는 아버지의 주당근로시간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강화된 결과로 자녀돌봄시간이 약 29분 줄었어야 하지만, 통제변수의 영향력 변화와 관찰되지 않은 요인들의 영향으로 아버지의 주중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하였다. 주말에는 아버지의 주당근로시간이 감소하고 학력이 고졸이하인 부모의 비중이 감소한 것이 특성효과로 인한 자녀돌봄시간의 증가분에 기여하였다. 이에 반해 계수효과에서는 주중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주당근로시간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이 감소했어야 하지만, 통제변수의 영향력 변화와 관찰되지 않은 요인들의 작용으로 아

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III. 결론 및 제언

1999년부터 2014년까지 15년 동안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은 모두 증가하였고, 서구사회와 동일한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K. Fisher et al., 2007; J. Gimenez-Nadal & A. Sevilla, 2012; M. E. Kan et al., 2011; D. J. Maume, 2011; O. Sullivan et al., 2014). 2004년, 2009년, 2014년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주당근로시간, 어머니의 소득비중,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성역할 태도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주중과 주말 자녀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조사연도에 따라 특정 요인의 영향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였고, 영향력의 강도나 방향이 바뀌기도 하였다.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주당근로시간은 모든 조사연도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본인의 자녀돌봄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시간과 자녀돌봄시간 사이의 관련성을 밝힌 실증연구 결과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G. Argyrous & S. Rahman, 2014; D. Hallberg & A. Klevmarken, 2003; R. H. Kitterød & S. V. Pettersen, 2006; D. J. Maume, 2011; R. Wang & S. M. Bianchi, 2009). 또한 2014년으로 올수록 어머니의 주당근로시간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더 강해졌다. 최근으로 올수록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확대되면서 향상된 취업지위와 임금수준, 그리고 노동시장의 양성평등 지향성의 결과로 여성 근로시간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M. Fuwa, 2004). 그러나 배우자의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는 2014년에 아버지의 주당근로시간이 어머니의 주중 자녀돌봄시간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이 유일하였다. 부부간 시간사용에서의 상호의존성이 나타났다는 것은 부부가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자녀돌봄시간을 배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2014년 주중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은 부부간 가용한 시간에 따라 이전에 비해 비교적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여성의 취업률 증가, 임금 상승, 교육수준 향상, 평등한 성역할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같은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M. Fuwa, 2004; H. Stier & N. Lewin-Epstein, 2007).

어머니의 상대적 소득비중은 본인의 자녀돌봄시간에만 영향을 미쳤고,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특히 2004년과 2009년에 어머니의 소득비중과 본

인의 자녀돌봄시간 사이의 부적 관련성이 2014년에는 정적인 관계로 바뀐 결과는 일하는 어머니들이 더 이상 자신의 소득을 사용하여 자녀돌봄을 회피하거나 아웃소싱하지 않고, 반대로 자녀와의 시간을 늘리려고 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L. Craig, 2006a; M. Dedding & M. Lausten, 2006). 집중적인 어머니역할에 대한 기대와 규범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러한 기대와 규범에 순응하려는 고학력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어머니의 소득비중의 영향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2014년이 되면 어머니의 주중 자녀돌봄시간과 아버지의 주중과 주말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쳤다. 집중적인 어머니역할 규범을 수용하려는 고학력 여성들이 늘어남에 따라 2014년에는 부모가 모두 전문대 이상인 집단에서 여성의 자녀돌봄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S. Hays, 1996; D. D. Johnston & D. H. Swanson, 2006; A. Lareau, 2002; Y. Song, 2011). 특히 2009년까지만 해도 드러나지 않았던 교육수준과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 사이의 관련성이 2014년이 되면서 나타났다는 사실은 남성의 자녀돌봄시간에 미치는 교육수준의 영향력이 2014년에 더 강해졌음을 의미한다(L. Craig, 2006a; P. England & A. Strivastava, 2013; O. Sullivan et al., 2014). 그러나 주말에는 교육수준의 영향이 주중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2004년 주말에는 교육수준과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 사이에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나, 2009년 이후에는 관련성이 사라졌다. 2014년 주말에는 부모가 전문대 이상인 가구에 비해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고학력인 가구에서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이 38분이나 적었다. 2014년 주말 남성의 평균 자녀돌봄시간이 92분임을 고려할 때(<Table 3> 참조), 38분은 매우 큰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참여적인 아버지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규범을 수용하여 행위로 이어지게 하는 매개체가 아니라, 자녀돌봄을 회피하기 위한 협상의 자원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를 돌보는 행위에 따르는 즐거움과 보상으로 인하여 자녀돌봄은 가사노동과 같은 무급노동이지만 회피의 대상은 아니라고 연구자들은 주장하여 왔다(D. Hallberg & A. Klevmarken, 2003; O. Sullivan, 2013). 그러나 주중 장시간 근로로 피곤한 한국의 아버지들에게 주말의 육아는 회피할 수 있다면 회피하고 싶은 대상일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부모의 성역할 태도는 2014년 어머니의 주말 자녀돌봄시간과 2004년 아버지의 주말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쳤다. 2014년 주말에는 부모의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인 가구의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의 성역할 태도는 평등하지

만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구에서 어머니의 주말 자녀돌봄시간이 더 길었다. 어머니의 강한 전통적 성역할 태도가 본인의 자녀돌봄시간이 늘어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4년 주말에는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인 가구의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의 성역할 태도는 평등하지만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구에서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이 더 짧았다. 이 때에는 어머니의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이 줄어들도록 하였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2014년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 여성 인력을 퇴출시키기 위한 논리로 어머니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이 확산되면서 어머니역할에 대한 성고정관념이 오히려 강화된 시기일 수 있다(S. Cho, 1998; D. D. Johnston & D. H. Swanson, 2006; S. Won, 2014). 그렇다면 2014년에 어머니의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는 자녀돌봄의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다는 인식과 강하게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은 2004년과 2014년 사이에 증가하였다. 2004년과 2009년 사이에는 어머니의 소득비중과 주당근로시간이 늘어나고, 어머니의 소득비중이 본인의 자녀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강해졌고 아버지의 주당근로시간의 영향은 약해지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을 감소시켰어야 한다고 분해분석 결과는 제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변수의 영향력 변화가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 증가세를 견인하였다. 반면, 2009년과 2014년 사이에는 어머니의 소득비중이 본인의 자녀돌봄시간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약화되고 아버지의 주당근로시간이 미치는 정적 영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 증가세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나, 이처럼 자녀돌봄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여성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기 어려운 문제이다. 더욱이 2004년에서 2009년, 2009년에서 2014년 사이에 독립변수의 특성과 영향력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화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앞으로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 증가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맥락을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사용한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이 증가는 고학력의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진 부모가 늘고, 아버지의 주당근로시간이 줄어든 데에 기인하였다. 또한 부모가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강해졌고, 어머니의 주당근로시간이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강해진 것도 증가세에 기여

하였다. 교육수준 향상과 평등한 성역할 태도의 확산이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 증가를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앞으로도 증가세는 계속되리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주당근로시간이 주중과 주말, 연도를 불문하고 자녀돌봄시간의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이라는 사실은 시간이라는 자원을 제공해주는 일가족양립지원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경험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시간 지원은 일을 하는 개인에게 가용한 시간을 늘려줌으로써 일과 가족의 양립을 가능하게 해 주는 정책들로서, 모성휴가, 부성휴가, 육아휴직, 아버지할당제, 유연근무제도 등이 해당된다(D. Song & S. Jung, 2013). 실제로 연구들은 금전이나 서비스보다도 시간의 형태로 지원되는 정책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S. Kim & K. Hong, 2014; Y. Ryu, 2009). OECD 국가들 가운데 근로시간이 가장 길기로 유명한 한국의 노동시장환경에서 장시간 근로에 관용적인 조직문화는 일하는 부모들이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S. M. Ahn et al., 2014). 2004년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 이후 주5일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장도 점차 확대되는 등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근로관행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간이라는 자원의 가치는 더욱 클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정책이나 제도가 개인의 인식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H. Ingram, A. L. Schneider, & P. DeLeon, 2007)에서는 적극적인 시간지원정책의 시행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보육예산이 급증하고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되는 등 보육정책이 눈에 띄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자녀돌봄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집중적인 부모역할 이데올로기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부모의 자녀돌봄시간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한국 남성들이 자녀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또한 일가족양립의 목적이 부모에게 부모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자녀돌봄시간의 증가는 과거에 비해 일과 가족의 양립이 더 용이해진 변화의 산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Y. Shin et al., 2014). 그러나 여성에게 있어 자녀돌봄시간의 증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분해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참여가 늘어나고 임금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자녀돌봄시간은 감소했어야 한다. 그러나 주당근로시간, 어머니의 소득비중, 교육수준, 성역할 태도가 여성

의 자녀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시대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면서 이 요인들이 여성을 자녀돌봄으로 더 강력하게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어머니의 교육열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평가받아 왔고,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학업성취가 부모의 성공으로 평가받는 사회적 분위기는 아직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조기교육이 강조되면서 어머니들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경쟁적으로 자녀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 이처럼 자녀에게 과도한 투자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일하는 어머니의 이중노동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고학력 여성의 인적자본이 경제활동참여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적영역에 머물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고학력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L자형 곡선을 보이는 특성이 있다.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탈퇴한 후에는 재진입이 어렵다는 의미이다. 기혼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시점은 주로 출산과 육아가 집중되는 시기이지만,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취업모의 경제활동 중단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S. Son & J. Lee, 2014)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자녀의 교육이 노동시장 재진입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성의 일가족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대부분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왔다. 그러나 정책의 수혜 대상을 더 확대하여 보육 부담뿐만 아니라 교육 부담까지도 덜어줄 수 있는 일가족양립지원정책을 구상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자녀돌봄 행위가 동시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을 분석하지 않았고, 자녀돌봄의 구체적인 행위별로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어머니가 동시행동으로 수행하는 자녀돌봄시간을 고려하지 않으면 자녀돌봄시간은 과소추정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L. Craig, 2006b; S. Offer & B. Schneider, 2011). 또한 S. Raley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근로시간이나 상대적 소득비중이 아버지의 총 자녀돌봄시간과는 무관하였지만, 자녀돌봄의 내용을 신체적 돌봄이나 자녀와 놀아주기, 또는 홀로 돌보기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는 자녀돌봄 행위의 성격에 따라 관련요인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자녀돌봄을 내용에 따라 세분화하여 변화의 추이나 관련요인을 살펴본다면 더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둘째,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수를 모형에 투입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면밀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분석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가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에 대해서는 높은

설명력을 보인 반면,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의 자녀돌봄에 대한 시간투자를 결정하는 다른 주요 요인들이 있다는 의미이다. 분석자료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한계로 미취학 자녀의 수나 연령과 같이 기존 연구에서 주요 예측변수로 보고된 요인들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나, 분해분석과 같은 경우에는 모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에서(B. Jann, 2008; D. J. Maume, 2011) 추후 연구에서는 생활시간조사에서 남성의 자녀돌봄시간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깊이 있게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제변수로 사용한 요인들의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도 후속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자녀돌봄시간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의 영향력이 종단적으로 달라진 원인을 보다 거시적인 맥락의 영향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녀돌봄시간의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이나, 그러한 증가세를 이끌어가는 동력을 한국사회의 특수한 배경에서 탐색함으로써, 본 연구결과는 한국사회에 맞춤형되고 시의적절한 정책 구상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자녀돌봄시간의 시계열에 따른 차이를 분해한 기존 연구들이 자녀돌봄시간의 차이를 변수의 평균값 차이에 기인하는 부분과 변수의 계수 변화에 기인하는 부분으로 크게 나누는 수준으로만 분석을 제한하였던 것과는 달리, 각각의 개별 요인들의 평균값 차이와 계수변화가 자녀돌봄시간의 차이에 기여한 부분을 세부분해하여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았다는 것에서 본 연구의 또 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REFERENCES

Ahn, S. M., Lee, K. Y., & Lee, S. M. (2013).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and time. *Journal of the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7(2), 93-119.

Aldous, J., Mulligan, G. M., & Bjarnason, T. (1998). Fathering over time: What makes the differ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4), 809-820.

Argyrous, G., & Rahman, S. (2014). How does paid work affect who does the childcare? An analysis of the time use of Australian couples.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doi:10.1007/s11150-014-9274-5.

Berik, G., & Kongar, E. (2013). Time allocation of mar-

ried mothers and fathers in hard times: The 2007 - 09 US recession. *Feminist Economics*, 19(3), 208-237.

Bianchi, S. M., Milkie, M. A., Sayer, L. C., & Robinson, J. P. (2000). Is anyone doing the housework? Trends in the gender division of household labor. *Social Forces*, 79(1), 191-228.

Bittman, M., Craig, L., & Folbre, N. (2004). Packaging care: What happens when parents utilize non-parental child care. In N. Folbre, & N. Bittman (Eds.), *Family time: The social organization of care* (pp. 133-151). London: Routledge.

Blau, F. D. (1998). Trends in the well-being of American women, 1970-1995.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6(1), 112-165.

Blinder, A. S. (1973). Wage discrimination: Reduced form and structural estimate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8(4), 436-455.

Bolzendahl, C. I., & Myers, D. J. (2004). Feminist attitudes and support for gender equality: Opinion change in women and men, 1974-1998. *Social Forces*, 83(2), 759-789.

Bonke, J., & Esping-Andersen, G. (2011). Family investments in children: Productivities, preferences, and parental child car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7(1), 43-55.

Brewster, K. L., & Padavic, I. (2000). Change in gender ideology, 1977-1996: The contribution of inter-cohort change and population turnove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2), 477-487.

Bulanda, R. E. (2004). Paternal involvement with children: The influence of gender ideolog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1), 40-45.

Chalasani, S. (2007).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education and their time with children. *Electronic International Journal of Time Use Research*, 4(1), 93-117.

Chin, M., Lee, J., Lee, S., Son, S., & Sung, M. (2012). Family policy in South Korea: Development,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1(1), 53-64.

Cho, M.-R. & Yoon, S.-Y. (2014). Changing differences by educational attainment in fathers' family work - Domestic labor and child care -.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44(6), 5-30.

Cho, S.-K. (1998). Economic crisis, women's work and employment politics. *Journal of Korean Women's*

- Studies*, 14(2), 5-22.
- Coltrane, S. (2000). Research on household labor: Modeling and measuring the social embeddedness of routine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4), 1208-1233.
- Connelly, R., & Kimmel, J. (2009). Spousal influences on parents' non-market time choices.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7, 361-394.
- Craig, L. (2006a). Parental education, time in work and time with children: An Australian time-diary analysi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7(4), 553-575.
- Craig, L. (2006b). Does father care mean fathers share? A comparison of how mothers and fathers in intact families spend time with children. *Gender & Society*, 20(2), 259-281.
- Craig, L. (2007). How employed mothers in Australia find time for both market work and childcar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8(1), 69-87.
- Craig, L., & Bittman, M. (2008). The incremental time costs of children: An analysis of children's impact on adult time use in Australia. *Feminist Economics*, 14(2), 59-88.
- Craig, L., Mullan, K., & Blaxland, M. (2010). Parenthood, policy and work-family time in Australia 1992-2006. *Work, Employment and Society*, 24(1), 27-45.
- Crompton, R., Brockmann, M., & Lyonette, C. (2005). Attitudes, women's employment and the domestic division of labor: A cross-national analysis in two-waves. *Work, Employment and Society*, 19(2), 213-233.
- Davis, S. N., & Greenstein, T. N. (2009). Gender ideology: Components, predictors, and consequenc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5(1), 87-105.
- Deding, M., & Lausten, M. (2006). Choosing between his time and her time: Paid and unpaid work of Danish couples. *Electronic International Journal of Time Use Research*, 3(1), 28-48.
- England, P., & Strivastava, A. (2013). Educational differences in US parents' time spent in child care: The role of culture and cross-spouse influence. *Social Science Research*, 42(4), 971-988.
- Eun, K.-S. (2009). Household division of labor for married men and women in Korea.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2(3), 145-171.
- Fisher, K., Egerton, M., Gershuny, J., & Robinon, J. (2007). Gender convergence in the American Heritage Time Use Study (AHTU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2(1), 1-33.
- Fuwa, M. (2004). Macro-level gender inequality and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22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9(6), 751-767.
- Gaunt, R. (2006). Biological essentialism, gender ideologies, and role attitudes: What determines parents' involvement in child care. *Sex Roles*, 55(7), 523-533.
- Gauthier, A., Smeeding, T. M., & Furstenberg, F. (2004). Are parents investing less time in children? Trends in selected industrialized countr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4), 647-671.
- Gimenez-Nadal, J., & Sevilla, A. (2012). Trends in time allocation: A cross-country survey. *European Economic Review*, 56(6), 1338-1359.
- Hall, S. S. (2005). Change in paternal involvement from 1977 to 1997: A cohort analysis.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34(2), 127-139.
- Hallberg, D., & Klevmarken, A. (2003). Time for children: A study of parent's time allocation.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6(2), 205-226.
- Hays, S. (1996).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motherhood*.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Henwood, K., & Procter, J. (2003). The 'good father': Reading men's accounts of paternal involve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first-time fatherhood.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2(3), 337-355.
- Heo, S.-Y. (2008). Research on time use for housework of women and men in double income households. *Korean Women's Studies*, 24(3), 177-210.
- Hofferth, S. L. (2003). Race/ethnic differences in father involvement in two-parent families: Culture, context, or economy? *Journal of Family Issues*, 24(2), 185-216.
- Hook, J. L. (2006). Care in context: Men's unpaid work in 20 countries, 1965-2003.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1(4), 639-660.
- Hyun, J. E. (2014). The analysis on change of childcare policy and female time allocatio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8(1), 207-231.
- Ingram, H., Schneider, A. L., & DeLeon, P. (2007). Social construction and policy design.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2, 93-126.
- Jann, B. (2008). The Blinder-Oaxaca decomposition for linear regression models. *The Stata Journal*, 8(4), 453-479.

- Ji, M. W., & Cho, M. S. (2014). Substitutability of spousal housework time in dual-earner households: Evidence from exogenous variation in labor market time. *The Journal of Women and Economics*, 11(1), 1-31.
- Johnston, D. D., & Swanson, D. H. (2006). Constructing the "good mother": The experience of mothering ideologies by work status. *Sex Roles*, 54(7), 509-519.
- Joo, E., Kim, S., & Kim, M. (2014). A study on parental time for preschool child in Korea.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30(2), 367-400.
- Kan, M. Y., Sullivan, O., & Gershuny, J. (2011). Gender convergence in domestic work: Discerning the effects of interactional and institutional barriers from large-scale data. *Sociology*, 45(2), 243-251.
- Kim, S. H. (2015). The change of attitudes to gender role according to type of family policies: Focusing on cash, time and service. *Korean Social Policy Review*, 22(1), 285-316.
- Kim, S.-H. & Hong, K.-Z. (2014). The combined impact of family policies on fertility and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21 OECD countries. *Social Welfare Policy*, 41(2), 213-238.
- Kim, Y. M. (2012). The role of family policy in explaining gender role attitudes: A comparative multi-level analysis of welfare states.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8(2), 211-241.
- Kitterød, R. H., & Pettersen, S. V. (2006). Making up for mothers' employed working hours? Housework and childcare among Norwegian fathers. *Work, Employment & Society*, 20(3), 473-492.
- Lareau, A. (2002). Invisible inequality: Social class and childrearing in black families and white famil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5), 747-776.
- Marsiglio, W. (1991). Paternal engagement activities with minor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4), 973-986.
- Maume, D. J. (2011). Reconsidering the temporal increase in fathers' time with children.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32(3), 411-423.
- Nock, S. L., & Kingston, P. W. (1988). Time with children: The impact of couples' work-time commitments. *Social Forces*, 67(1), 59-85.
- Noh, H. (2014). Educational homogamy and inequality of caring time. *Social Welfare Policy*, 41(4), 181-200.
- Oaxaca, R. (1973). Male-female wage differentials in urban labor market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4(3), 693-709.
- Offer, S., & Schneider, B. (2011). Revisiting the gender gap in time-use patterns: Multitasking and well-being among mothers and fathers in dual-earner famil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6(6), 809-833.
- Park, J. S. (2013). Gauging gender equality in terms of household labor division and gender-role percep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99, 28-38.
- Raley, S., Bianchi, S. M., & Wang, W. (2012). When do fathers care? Mothers' economic contribution and fathers' involvement in child car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7(5), 1422-1459.
- Ryu, Y.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family balance policies and gender equity in labor market. *The Women*, 76(1), 5-42.
- Sayer, L. C., Gauthier, A. H., & Furstenburg, F. F. (2004a). Educational differences in parents' time with children: Cross-national vari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5), 1152-1169.
- Sayer, L. C., Bianchi, S. M., & Robinson, J. P. (2004b). Are parents investing less in children? Trends in mothers' and fathers' time with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0(1), 1-43.
- Sayer, L. C. (2005). Gender, time and inequality: Trends in women's and men's paid work, unpaid work and free time. *Social Forces*, 84(1), 285-303.
- Schwartz, C. R., & Mare, R. D. (2005). Trends in educational assortative marriage from 1940 to 2003. *Demography*, 42(4), 621-646.
- Shin, Y.-J., Ki, J. R., Woo, S. J., & Yoon, J. (2014). *Analysis on childcare behaviors after the expansion of childcare polici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Son, S., & Lee, J. (2014). Intentions of employed mothers with young children to leave the labor forc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2(3), 157-177.
- Song, D.-Y., & Jung, S.-Y. (2013). Paradigm shift toward comprehensive family policy. *Journal of Critical Social Policy*, 39, 145-189.
- Song, Y.-J. (2011). Changes in parental time spent with childre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4(2), 45-64.

- Stickney, L. T., & Konrad, A. M. (2012). Societal institutions and work and family gender-role attitudes. *Organization Management Journal*, 9(4), 236-246.
- Stier, H., & Lewin-Epstein, N. (2007). Policy effects on the division of housework. *Journal of Comparative Policy Analysis*, 9(4), 235-259.
- Sullivan, O. (2010). Changing differences by educational attainments in fathers' domestic labour and child care. *Sociology*, 44(4), 716-733.
- Sullivan, O., Billari, F. C., & Altintas, E. (2014). Fathers' changing contributions to child care and domestic work in very low-fertility countries: The effect of educa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35(8), 1048-1065.
- Wang, R., & Bianchi, S. M. (2009). ATUS fathers involvement in childcare. *Social Indicators Research*, 93(1), 141-145.
- Won, S.-Y. (2014). Changes in gender role stereotyp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women's policy: Focusing on perceptual differences between 1996 and 2010.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20(3), 141-171.

- Received: June 29. 2016
- Revised: September 23. 2016
- Accepted: October 23. 2016